

# 『外科正宗』에 기재된 外治療法에 관한 연구

大邱韓醫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孫永勳 · 李丙旭\* · 金恩暇

## A Study of External Treatment on the 『Wai-Ke-Zheng-Zong (外科正宗)』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Daegu Haany University  
Young Hoon Sohn, Byung Wook Lee, Eun Ha Kim.

Recently there are concerned about External Treatment in Oriental medicine and a lot of study is researched. But it is not enough to apply to clinic and it has difficult subject. 『Wai-Ke-Zheng-Zong』 had been made by Chen-Shi-gong(陳實功). It included synthetic External Treatments in those days. So we would like to bring out external treatment methods in it and be easy to use clinic. In addition we want extend territory of treatment methods of oriental medicine. We have researched external treatment of 『Wai-Ke-Zheng-Zong』 according to below three methods. We researched using external treatment methods of each disease and arranged it. In 『Wai-Ke-Zheng-Zong』, there are 150 external treatments. And we arranged external treatments by each methods. We classified external treatment methods by 8 class. Conclusion is that, 『Wai-Ke-Zheng-Zong』 has described 122 external diseases. External treatments of 『Wai-Ke-Zheng-Zong』 had been used to cure 75 diseases from the whole disease. External treatments of 『Wai-Ke-Zheng-Zong』 was more than 150 kinds. And each disease treated by more than one external treatment. External treatment methods of 『Wai-Ke-Zheng-Zong』 have contained hot compress therapy, fumigation therapy, bathing therapy, application therapy, medication bag therapy, medication plug therapy, medication massotherapy, aroma therapy and so on.

Key Words : 外治療法(External Treatments), Wai-Ke-Zheng-Zong, Chen-Shi-gong.

### I. 緒論

外治療法은 기존의 內治와 상반된 개념의 용어로서 한의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약을 구강을 통해서 胃腸管에 투여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皮膚나 呼吸器, 九竅 등에 다양한 자극의 방법을 통하여 치료효과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氣功, 鍼灸治療, 기타 物理療法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外治療法은 鍼砭, 按摩, 熱熨, 뼈의 손상에 따른 整形 및 약물을

\* 교신저자: 李丙旭, 大邱韓醫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53) 770-2265, omis@dhu.ac.kr

1) 申光浩, 韓醫外治療法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p. 3-4.

이용한 외치법이 있다.<sup>2)</sup> 한의학은 형성 초기부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외치법을 사용하였으며 치료에 있어서 외치법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을 추측할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있다. 『山海經』에는 “薰草，麻葉而方莖，赤華而黑實，臭如薜蘿，佩之可以已癘”<sup>3)</sup>라 하여 향기가 나는 풀을 차고 다님으로써 疫病을 물리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바 이를 嚆矢로 볼 수 있으며, 『黃帝內經』에서는 “黃帝曰，刺寒痺，內熱奈何，伯高答曰，刺布衣者，以火焮之，刺大人者，以藥熨之”<sup>4)</sup>라 하여 寒痺를 藥熨法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한 질병의 치료법으로서 외치법의 효능을 천명하였다. 특히 清代 徐大椿은 『徐靈胎醫書全集·醫學原流論·湯液不足盡病論』에서 外治藥의 준비에 대하여 강조하였다.<sup>5)</sup> 또한 吳尚先은 “外治의 이치가 곧 內治의 이치이고, 外治藥이 곧 內治藥이며 방법만 다를 뿐이다.”<sup>6)</sup>라고 하였다.<sup>7)</sup>

外治療法에 대한 이러한 기록들로 볼 때 이미 外治療法은 한의학에 일정 부분 응용되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그 효능 역시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왔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차 후대로 내려오면서 醫家들은 外治療法으로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기능을 소홀히 하게 되고 外科疾患 치료에만 국한하여 사용하여 오히려 역대의 외치법에 대한 내용들이 전문 외과서에 한정되어 나타나게 되었으며 사용범위도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內服藥과는 달리 약물을 사용하는 신체 부위나 증상의 유형에 따라 적당한 劑型法이 선택되어야 하

는데, 劑型을 만드는데 장시간의 시간과 손이 많이 가는 불편함이 있어 점차로 기피하게 된 점도 외용약이 주목받지 못한 한 원인이라 볼 수 있다.<sup>8)</sup>

최근 외용약의 臨床上 양호한 효과와 일반인들의 한방외용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진됨을 통해서 1997년 대한한의학회 한의외치제형학회가 설립되어 外治療法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몇몇의 연구<sup>9)10)</sup>와 부분적인 시 대고찰<sup>11)12)</sup> 및 저서<sup>13)14)</sup>에만 머물러 충분히 외용약의 효과를 소개하기에는 그 연구 실적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外科正宗』을 통해서 당시까지 집약되어 있던 외치법과 臨床의으로 빈용되었던 처방들을 정리하여 소개하여 실제 臨床에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臨床上 유효한 처방들을 劑型別로 구분하여 한의학의 치료영역을 넓히고자 한다.

## II. 本 論

### 1. 研究方法

『外科正宗』은 明末 著名한 외과의사인 陳實功(약1555~1636)의 저서이다. 萬曆丁巳年(1617)에 4卷으로 撰해진 본서는 外科의 本末, 治法, 治則 및 150여종의 병증에 대한 임상경험을 전면적이고 계

2) 廖育許 外 2人 著, 朴炫局 外 2人 譯, 中國科學技術史醫學篇, 서울, 일지사, 2003, p. 62.

3) 鄭在古, 山海經, 서울, 민음사, 1997, p. 74.

4) 金達鎭, 注解補注黃帝內經靈樞, 의성당, 서울, 2002, p. 206.

5)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五洲出版社圖書有限公司, 미상, p. 85.

“其餘諸病, 有宜丸宜散宜膏者, 必醫者豫備, 以行一時急用, 覓其病所在, 而委曲施治.”

6) 吳尚先, 理瀉辨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 8.

“外治之理, 則內治之理, 外治之藥, 則內治之藥, 所異者法耳.”

7) 李內旭 외 4인, 千金要方에 기재된 藥浴療法에 관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4, 17(1), p. 198.

8) 李貞籟 外 1人, 外科正宗에 수록된 外用藥에 대한 文獻的 考察, 대한외관과학회지, 대한외관과학회, 2000, 13(1), p. 186.

9) 權一惠, 外 1人, 乳房疾患에 관한 鍼灸治療와 外治療法에 대한 文獻的 考察, 대전대논문집,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2001, 10(1), p. 67-68

10) 金美貞 外 1人, 帶下에 대한 鍼灸治療와 外治療法에 관한 文獻的 考察, 대전대논문집,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2001, 10(1), p. 79-92.

11) 박태열 外 1人, 馬王堆醫書·黃帝內經·金匱要略에 나타난 中國 古代 外治療法,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대한동의생리학회·대한동의병리학회, 2002, 16(4), p. 617-625.

12) 金宇弘 外 1人, 吳師機의 外治法 思想에 대한 研究, 대한외관과학회지, 대한외관과학회, 1999, 12(1), p. 268-294.

13) 申光浩, 韓醫外治療法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14) 申光浩, 漢方外用藥, 서울, 열린책들, 1994.

통적으로 기재하였다. 특히 외치법을 중시한 것이 특징인데, 外敷藥, 刀鍼, 手術 등이 외과질병의 치료에 불가결한 중요한 조치라고 보았다. 陳氏는 외과수술에 능했지만 외과병의 內治法도 소홀히 하지 않아 외과수술과 약물치료를 서로 결합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內科를 중시하고 外科를 경시하는 사회경향에 대해서 “外科治療가 內科治療보다 어렵다. 왜 그런가? 內科의 증상은 바깥으로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外科의 증상은 반드시 그 안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sup>15)16)</sup>

『外科正宗』을 대표로 하는 正宗派는 消, 托, 補 三法으로 腫瘍을 치료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腫瘍의 초기에 消法을 위주로 하고, 腫瘍의 후기와 潰瘍초기에 托法을 위주로 하고, 潰瘍후기에는 補法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正宗派의 주장은 비교적 全面的이어서 후대의 外治療法에 미친 영향이 컸다.<sup>17)</sup>

그러나 洪은 이러한 외치중심의 치료법은 당시에 儒醫로 자처하는 일반醫師들은 하지 않았으므로 여러 儒醫들에게 攻擊을 자주 받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外治療法의 발전을 저해한 요소라고 하였다.<sup>18)</sup>

『外科正宗』의 外治療法을 연구함에 있어서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단, 현대 外治療法의 성격상 鍼灸治療와 按摩등 독립된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제외하였다. 『外科正宗』원문은 人民衛生出版社의 출판본<sup>19)</sup>을 기준으로 하였다.

1) 각 질환별로 응용된 외치요법을 정리하였다.

『外科正宗』은 모두 4券이고 157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篇은 대부분 각 질환별로 구분되어 있

다. 각 篇에는 內服處方과 外治處方이 구분되어 소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內服處方을 제외한 外治處方을 정리하고 그 임상적 활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1) 질환의 순서는 『外科正宗』의 차례에 따라 구성하였다.

(2) 外治療法은 각 질환에 대한 主治의 의미로 활용된 것만 정리하고, 보조적이거나 부수적 용도로 사용된 외치법은 제외하였다.

(3) 處方에 대한 해설은 『外科正宗』의 해설을 위주로 하되 저자의 정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부연하였다.

2) 각 處方별로 용례, 구성, 시술방법을 정리하였다.

『外科正宗』에는 900여가지에 달하는 처방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 중에서 外治療法으로 활용된 처방은 150여가지이다. 이 외치처방들에 대해 기록된 모든 활용예를 정리하여 재구성했으며, 구성과 시술법을 부연하였다.

(1) 처방의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구성하였다.

(2) 사용된 번호는 용례, 구성, 시술방법 순이다.

3) 각 施術方法별로 활용되는 처방을 정리하였다.

『外科正宗』에는 외치처방을 소개할 때 시술법도 함께 서술하여 임상에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시술방법의 구체화와 체계화를 피하기 위해 시술법을 계통화하고 각 시술법별로 빈용되는 처방을 정리하였다. 시술방법의 구성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사용한 시술법별로 묶어서 크게 8가지<sup>20)</sup>로 정리하였으

15) 廖育群 外 2人 著, 朴炫局 外 2人 譯, 中國科學技術史醫學篇, 서울, 일중사, 2003, p. 779-780.

16)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5.  
“治外較難於治內何者? 內症或不及其外, 外之症則必根於其內也.”

17) 洪元植 外 1人, (增補)中國醫學史, 서울, 일중사, 2001, p. 410.

18)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7, p. 267.

19)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20) 文字尙, 外治療法 學術史에 관한 研究, 경산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005, p. 83-91.

며 세부사항을 부연하였다.

## 2. 질환별 처방정리

『外科正宗』은 외과질환을 癰疽門, 上部疔毒門, 下部癰毒門, 雜瘡毒門으로 구분하여 각 門마다 속하는 질환들을 篇으로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모두 157篇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篇은 대부분 한가지 외과질환을 다루고 있어 총122종의 외과질환을 기재하였으며 각 질환마다 看法, 治法, 治驗, 主治方, 應用方을 제시하고 있다. 기재된 질환은 가장 흔한 癰疽나 瘰癧, 痔瘡등에서부터 물건을 잘못 삼킨 외상, 벌레나 동물에 물린 외상, 신체가 切斷된 경우, 독약을 먹은 후의 외과질환 등 다양한 질환들을 다루고 있어 외과와 관련된 거의 모든 질환들을 일목요연하게 구분하였다. 각 篇마다 다양한 외치요법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현재의 시술여건과 임상활용을 중시하여 그 중 외치 처방이 각 질환의 主治方으로 쓰인 처방들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도표화하였다. 지면상 발췌하여 기재한다.

### 1) 癰疽

처방	주치, 효능
熏發背奇方	癰疽가 發한 初期 7일이내에 사용하여 消하거나 潰하게 함
敷藥方	癰腫初期에 膿出하게 함
如意金黃散	癰疽와 一切 外科瘡傷의 통치방
四虎散	癰疽가 아직 단단하고 不作膿
真君妙貼散	癰疽를 비롯한 一切 外科의 諸毒, 紅腫, 腐爛의 통치방
回陽玉龍膏	癰疽陰病으로 不紅腫, 不發熱, 不作膿 痺症에서 발열감이 없고 手足膝이 疼痛
沖和膏	癰疽에 陰陽不分, 혹은 微熱
鐵桶膏	潰後 潰瘍이 不收束하는 者
煮拔筒方	潰後 膿이 外出되지 않고 內陷하여 煩躁하고 堅硬한 者
豬蹄湯	癰疽가 潰後, 膿이 澁滯한때 惡肉과 死肌와 함께 씻어내림
洗藥方	毒氣가 外出한후 生肌長育케함
加味太一膏	一切의 癰疽뿐만 아니라 각종 통증

	에 사용
玉紅膏(=生肌玉紅膏, 長肉玉紅膏)	一切 癰疽의 통치방, 生肌斂口케함
化腐紫霞膏	癰疽와 瘡症에서 腐爛, 穿潰여부와 무관하게 사용
甘草湯(=甘草溫湯, 甘草煎湯)	一切 癰疽, 諸般潰爛, 棒毒等瘡 질환에 洗함
將紅膏	生肌長育
蔥艾湯	瘡 未潰할 때 解毒
吸毒散	毒氣를 吸散

표 6. 癰疽의 治方

### 2) 疔瘡

처방	주치, 효능
立馬回疔丹	疔瘡초기 惡治로 瘡毒이 內陷하여 流注하는 者
鉛粉散	疔瘡이 오래되어 腐爛하고 紫黑血이 出
束毒金箍散	疔瘡를 刺한후 腫氣가 發한 者
蟾酥條	發泄毒血한후 插入하여 化膿케 함

표 7. 疔瘡의 治方

### 3) 脫疽

처방	주치, 효능
生肌紅, (=紅, 黑二膏)	培長肌肉케 함
蟾酥餅	初期 外科질환의 惡寒發熱에 灸後用
蟾酥錠	發泄毒血한후 化膿케 함

표 8. 脫疽의 治方

### 4) 流注

처방	주치, 효능
香附餅	風寒流注가 경락에 成腫하고 作痛, 熨함
琥珀膏	流注초기에 成膿하지 않은 모든 경우에  활용

표 9. 流注의 治方

5) 乳癰

처방	주치, 효능
治乳使用方	乳癰初起에 腫痛하고 未成膿한 자
木香餅	一切氣滯하여 結腫한  경우의  통치방
阿魏化痞膏	外腫을 消失케함

표 10. 乳癰의 治方

6) 痔瘡

처방	주치, 효능
洗痔枳殼湯 (= 枳殼湯)	痔瘡으로 腫痛, 下墜의  통치방
五倍子散	痔瘡이 堅硬하고 疼痛이  극심한 자
田螺水	痔瘡으로 堅硬, 腫痛, 脫肛腫泛한 자
喚痔散	內痔로 外出하지 않은  경우 瀉下藥을  쓴후 此藥을  填入함
護痔膏	喚痔散으로  出한  이후 肌肉을  보호하기  위해 用
枯痔散	護痔膏를  써서  보호된 痔를 乾黑하게  함
起痔湯	枯痔散을  써서 乾黑하게  된 痔를  脫落하게  함
生肌散	痔核이 脫落한후 孔竅不收한  자
洗痔腫痛方	熏洗하면 痔의 疼痛이  감소
人中白散	치핵이 腫痛堅硬하고 墜重脫肛
三品一條槍	十八種 痔漏
生肌鳳雛膏 (= 鳳雛膏)	脫落한후 生肌長育케  함
煮線方	痔와 五癭六瘤에 根部를  묶어서  치료

표 11. 痔瘡의 治方

7) 結毒

처방	주치, 효능
熏洗結毒方	腐爛하여 痛多徹骨한  자
解毒紫金膏	楊梅結毒으로 腐爛하여 膿水淋漓하는  자
碧玉膏 (= 神仙碧玉膏)	結毒으로 潰爛臭穢, 疼痛하는  자
結毒靈藥方	楊梅結毒으로  인한  인후,  口의  腐爛
單油膏	肌肉을  보호함

碧雲散	結毒이 入顛頂하여 頭疼脹痛한   경우에  吹함
甘草, 白芷, 歸尾, 葱白	結毒으로  하지부에 潰爛되었을때,  초기 解毒

표 12. 結毒의 治方

8) 陰瘡

처방	주치, 효능
銀杏散	婦人이 濕熱下注하여 陰中作癢生瘡한   경우
塌瘻湯	陰中作癢生瘡
雄黃藜蘆散	婦人陰中突出하여 下垂한   경우
芎歸湯	陰瘡으로 瘙癢甚
甘草, 白芷, 蒼朮, 紫蘇	陰瘡으로 下垂된   경우 解毒을  위해 熏洗

표 13. 陰瘡의 治方

9) 紫白癩風

처방	주치, 효능
雌雄四黃散	紫白癩風에  피부가 作癢開大하는   자
肥皂方	癩風  통치방
蜜陀僧散	初起에 毛竅閉하고 體強한   자

표 14. 紫白癩風의 治方

10) 鵝掌風

처방	주치, 효능
二礬湯	鵝掌風 으로 皮膚가 破裂되고 作痛
桐油	鵝掌風에 搽抹함

표 15. 鵝掌風의 治方

11) 疥瘡

처방	주치, 효능
繡球丸	一切 乾濕疥瘡과 膿窠爛瘡으로  小양감이  극심
諸瘡一掃光	一切의 瘡瘡에  통치방으로  활용
洗瘡瘡方	모든 小양증을  진정시킴

표 16. 疥瘡의 治方

3. 처방별 용례, 구성, 시술방법

『外科正宗』에서 언급된 처방은 900가지 이상이 된다. 그중 활용된 모든 외치처방을 검색한 결과

150가지 이상의 처방이 검색되었다. 각 질환마다 거의 1번 이상은 외치요법을 활용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있으며 그 활용범위 또한 다양하여서, 실제 臨床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처방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모든 처방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으며 용례, 구성, 시술방법 순으로 기재하였다. 主治方이 아닌 경우 처방의 구성이나 용량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처방을 통해 충분히 예상 가능하여 따로 정리하지 않았다. 또한 한 가지 처방이 다양한 異名으로 언급되는 경우 가장 빈용되는 처방명을 우선으로 하여 정리하였으며 원래 처방명을 중복으로 기재하지는 않았다. 지면상 발췌하여 개재한다.

1) 茄根, 蔥湯

【용례】又每常凍風用茄根同蔥湯浸洗, 再不重發「凍風第七十八」<sup>21)</sup>

【시술법】洗「凍風第七十八」<sup>22)</sup>

2) 加味太一膏

【용례】治發背, 癰疽及一切惡瘡, 跌撲傷損, 濕痰流毒, 風濕, 風溫, 遍身筋骨走注作痛, 內傷風鬱, 心腹胸背攻刺作痛, 腿脚酸軟, 腰膝無力, 湯潑火燒, 刀傷, 棒毒, 五損內癰, 七傷外症俱貼患處. 又男子遺精, 婦人白帶俱貼臍下. 髒毒腸癰亦可丸服. 諸般瘡癤, 血氣癩癢, 諸藥不止痛癢者並效「雜忌須知第十四」<sup>23)</sup>

【구성】肉桂, 白芷, 當歸, 玄參, 赤芍, 生地, 大黃, 土木鱉(各二兩), 眞阿魏(三錢), 輕粉(四錢), 槐枝, 柳枝(各一百段), 血餘(一兩), 東丹(四十兩), 乳香末(五錢), 沒藥(末, 三錢)「雜忌須知第十四」<sup>24)</sup>

【시술법】隨時每取一塊銅杓內復化, 隨便攤貼至妙「雜忌須知第十四」<sup>25)</sup>

3) 甘草, 白芷, 歸尾, 蔥白

【용례】一男子患此, 自膝以下腐爛無空, 伏枕半年,

內以芎歸二朮湯, 外以甘草, 白芷, 歸尾, 蔥白煎洗「結毒論第三十七」<sup>26)</sup>

【시술법】煎洗「結毒論第三十七」<sup>27)</sup>

4) 甘草, 白芷, 蒼朮, 紫蘇

【용례】一婦人無辜發熱月餘, 忽陰中突出一物, 如雞冠一片, 此肝鬱脾虛所致. 外以甘草, 白芷, 蒼朮, 紫蘇煎湯「陰瘡論第三十九」<sup>28)</sup>

【시술법】煎湯, 每日熏洗「陰瘡論第三十九」<sup>29)</sup>

5) 甘草湯, 甘草溫湯, 甘草煎湯

【용례】專治癰疽, 發背, 諸般潰爛, 棒毒等瘡. 用甘草湯淋洗患上「雜忌須知第十四」<sup>30)</sup>

預煎甘草湯浸洗良久, 候瘀血稍盡, 以止血散摻之「脫疽論第十八」<sup>31)</sup>

將手隨浸甘草溫湯中片時「脫疽論第十八」<sup>32)</sup>

每日早晚甘草湯洗淨患上「癰疽論第二十三」<sup>33)</sup>

候痔四邊裂縫流膿, 至十四日期滿痔落, 用甘草湯洗淨「痔瘡論第三十」<sup>34)</sup>

凡遇前患, 先用甘草湯淋洗「下疳論第三十一」<sup>35)</sup>

外以甘草湯淋洗腐上「囊癰論第三十三」<sup>36)</sup>

外以甘草湯浴洗患上「結毒論第三十七」<sup>37)</sup>

臨用甘草湯洗淨患上「結毒論第三十七」<sup>38)</sup>

外以甘草煎湯漱口「多骨疽論第三十八」<sup>39)</sup>

甘草湯洗淨「天泡第八十」<sup>40)</sup>

先宜甘草湯洗淨「臭田螺第一百十九」<sup>41)</sup>

26)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04

27)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04

28)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14

29)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14

30)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3

31)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87

32)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88

33)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23

34)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70

35)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80

36)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89

37)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04

38)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05

39)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10

40)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53

41)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79

21)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52.

22)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52

23)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40

24)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40

25)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41

【시술법】淋洗「雜忌須知第十四」<sup>42)</sup>

6) 薑蕪潤肌膏(→ 潤肌膏, 潤肌散)

7) 乾坤一氣膏

【용례】專治痞疾, 母論新久立效. 又治諸風癱瘓, 濕痰流注, 各樣惡瘡, 百般怪症, 男子夜夢遺精, 婦人赤白帶下, 又男女精寒血冷, 久無嗣息者並貼之「痞癖第六十四」<sup>43)</sup>

【구성】當歸, 白附子, 赤芍, 白芍, 白芷, 生地 熟地, 穿山甲, 木鱉肉, 巴豆仁, 草麻仁, 三棱, 蓬朮, 五靈脂, 續斷, 肉桂, 玄參(各一兩), 乳香, 沒藥(各一兩二錢), 麝香(三錢), 眞阿魏(二兩, 切薄片聽用)「痞癖第六十四」<sup>44)</sup>

【시술법】對患貼之「痞癖第六十四」<sup>45)</sup>

8) 結毒靈藥方

【용례】治楊梅結毒, 腐爛作臭, 或咽喉, 唇, 鼻腐壞日甚者並效「結毒論第三十七」<sup>46)</sup>

【구성】水銀(一兩), 朱砂, 雄黃, 硫黃(各三錢)「結毒論第三十七」<sup>47)</sup>

【시술법】將罐倒懸, 紗眼內篩藥患上 …… 男子, 婦人咽喉爛者, 靈藥一錢加入中白二分研細吹之「結毒論第三十七」<sup>48)</sup>

9) 枯瘤方

【용례】治瘤初起成形未破者, 及根蒂小而不散者用「癭瘤論第二十三」<sup>49)</sup>

【구성】白砒, 硃砂, 黃丹, 輕粉, 雄黃, 乳香 沒藥 硼砂(各一錢) 斑蝥(二十個) 田螺(三枚, 大者, 去殼, 曬幹切片)「癭瘤論第二十三」<sup>50)</sup>

【시술법】先灸瘤頂三炷, 以藥餅貼之, 上用黃柏末

水調, 蓋敷藥餅「癭瘤論第二十三」<sup>51)</sup>

10) 枯礬散

【용례】脚丫濕癢即時消「婦人脚丫作癢第九十八」<sup>52)</sup>

【구성】枯礬(五錢), 石膏(煨), 輕粉, 黃丹(各三錢)「婦人脚丫作癢第九十八」<sup>53)</sup>

【시술법】溫湯洗淨, 搽藥「婦人脚丫作癢第九十八」<sup>54)</sup>

11) 苦參湯

【용례】治瘰癧瘡作癢, 抓之又疼, 坐如糠穩, 難以安睡「瘰癧瘡第八十八」<sup>55)</sup>

【구성】苦參四兩, 大菖蒲二兩, 河水五瓢「瘰癧瘡第八十八」<sup>56)</sup>

【시술법】臨洗和入公豬膽汁四, 五枚淋洗患上「瘰癧瘡第八十八」<sup>57)</sup>

12) 枯痔散

【용례】凡痔瘡泛出「痔瘡論第三十」<sup>58)</sup>

【구성】白礬(二兩), 蟾酥(二錢), 輕粉(四錢), 砒霜(一兩), 天靈蓋(四錢, 用清泉水浸, 以天靈蓋煨紅, 水內浸煨七次)「痔瘡論第八十八」<sup>59)</sup>

【시술법】將藥研末搽痔上, 每日辰, 午, 申三時用溫湯洗淨「痔瘡論第八十八」<sup>60)</sup>

13) 芎歸湯

【용례】芎歸湯洗陰中癢 蛇菌雞冠並此求「陰瘡論第三十九」<sup>61)</sup>

【구성】川芎, 當歸, 白芷, 甘草, 膽草 上各等分, 每

42)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3

43)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39

44)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39-240

45)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40

46)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08

47)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08

48)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08

49)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27

50)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27

51)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27

52)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65

53)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65

54)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65

55)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60

56)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60

57)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60

58)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75

59)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75

60)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75

61)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16

用五錢「陰瘡論第三十九」<sup>62)</sup>

【시술법】 熏洗, 煎湯浴洗患上, 隨後搽藥「陰瘡論第三十九」<sup>63)</sup>

#### 14) 金墨

【용례】 治血箭 …… 或金墨塗搽自止「血箭血痔第七十」<sup>64)</sup>

【시술법】 塗搽「血箭血痔第七十」<sup>65)</sup>

#### 15) 金鎖匙, 金鎖匙湯

【용례】 大人咽喉腫痛須將金鎖匙湯「治病則例歌第八」<sup>66)</sup>

其病雖凶, 而喉道又寬又腫, 此皆標病, 雖重無妨, 當用金鎖匙吐出痰涎「咽喉論第二十一」<sup>67)</sup>

一男子咽喉腫痛, 痰涎壅盛, 用金鎖匙先吐稠痰「咽喉論第二十一」<sup>68)</sup>

一婦人肥甚, 暑熱咽間腫痛, 痰涎上壅, 語聲不出甚危 …… 次以金鎖匙吐去稠痰五, 六碗「咽喉論第二十一」<sup>69)</sup>

治喉閉, 纏喉風, 痰涎壅塞, 口噤不開, 湯水不下「咽喉論第二十一」<sup>70)</sup>

又兼舌根並兩齒合縫盡處作腫, 瘀肉塗塞, 口噤難開 …… 甚者金鎖匙「重舌第一百十二」<sup>71)</sup>

【구성】 焰硝(一兩五錢) 硼砂(五錢) 片腦(一字) 白蠟(一錢) 雄黃(二錢)「咽喉論第二十一」<sup>72)</sup>

【시술법】 以竹筒吹患處「咽喉論第二十一」<sup>73)</sup>

#### 16) 金黃散(= 如意金黃散)

【용례】 又如瘡之四邊根脚餘腫, 其功又在敷藥收束

根本庶不開大, 初起時, 宜用金黃散敷於四邊, 乃拔毒, 消腫, 止痛「癰疽治法總論第二」<sup>74)</sup>

治癰疽, 發背, 諸般疔腫, 跌撲損傷, 濕痰流毒, 大頭時腫, 漆瘡, 火丹, 風熱天泡, 肌膚赤腫, 乾濕脚氣, 婦女乳癰, 小兒丹毒, 凡外科一切諸般頑惡腫毒「雜忌須知第十四」<sup>75)</sup>

隨用針刺腫上十餘處, 令吸惡血數碗, 將溫湯洗淨 …… 四圍敷金黃散早, 晚二次「疔瘡論第十七」<sup>76)</sup>

腫熱甚者, 如意金黃散敷之「時毒論第二十二」<sup>77)</sup>

腫上疔去惡血, 以金黃散敷之「時毒論第二十二」<sup>78)</sup>

一男子皮腫光亮, 發熱疼甚, 外敷如意金黃散「下疳論第三十一」<sup>79)</sup>

一男子風寒未經發散, 寒中腎囊, 作腫痛甚 …… 外敷如意金黃散數次「囊癰論第三十三」<sup>80)</sup>

治囊癰初起, 紅赤腫痛, 發熱墜重者「囊癰論第三十三」<sup>81)</sup>

初起毒從五臟蘊積者, 患必有頭紅熱, 墜重如石, 內必口乾發熱 …… 四邊以如意金黃散敷之, 拔出瘀膿紫血「腎癰論第三十五」<sup>82)</sup>

患上紅色熱甚者, 如意金黃散敷之「傷寒發頭第四十」<sup>83)</sup>

四邊焮腫, 上如意金黃散敷之「龍泉疽虎須毒第四十五」<sup>84)</sup>

焮痛處金黃散敷之「石榴疽第四十六」<sup>85)</sup>

濕毒攻注作癢, 癢熱焮疼, 初起挑破 …… 金黃散敷之「合穀毒第六十七」<sup>86)</sup>

甚者 …… 外搽 …… 或如意金黃散俱可敷之「血風瘡第七十五」<sup>87)</sup>

62)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16  
 63)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16  
 64)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43  
 65)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43  
 66)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7-18  
 67)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09  
 68)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10  
 69)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10  
 70)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13  
 71)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75  
 72)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13  
 73)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13

74)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7  
 75)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36  
 76)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77  
 77)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16  
 78)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18  
 79)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80  
 80)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89  
 81)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91  
 82)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95  
 83)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17  
 84)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20  
 85)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39  
 86)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41  
 87)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49



腰脅生之，肝火妄動，名曰纏腰丹……如意金黃散敷之「火丹第七十九」<sup>88)</sup>

治火丹不論新久癢痛「火丹第七十九」<sup>89)</sup>

兩腮腫痛，初發寒熱……外敷如意金黃散「疔腮第八十九」<sup>90)</sup>

初起宜用金黃散敷之「眼丹第一百」<sup>91)</sup>

砭血之後……換如意金黃散，用水芭蕉根搗汁調敷「小兒赤遊丹第一百十」<sup>92)</sup>

治小兒赤遊丹毒，紅如朱，熱如火，走如雲，散及遍身不定者「小兒赤遊丹第一百十」<sup>93)</sup>

【구성】天花粉(上白，十斤)，黃柏(色重者)，大黃，薑黃(各五斤)，白芷(五斤)，紫厚朴，陳皮，甘草，蒼朮，天南星(各二斤)「雜忌須知第十四」<sup>94)</sup>

【시술법】凡遇紅赤腫痛，發熱未成膿者，及夏月火令時，俱用茶湯同蜜調敷；如微熱微腫及大瘡已成，欲作膿者，俱用蔥湯同蜜調敷；如漫腫無頭，皮色不變，濕痰流毒，附骨癰疽，鶴膝風症等病，俱用蔥酒煎調；如風熱惡毒所生，患必皮膚亢熱，紅色光亮，形狀遊走不定者，俱用蜜水調敷；如天泡，火丹，赤遊丹，黃水漆瘡，惡血攻注等症，俱用大藍根葉搗汁調敷，加蜜亦可；湯發火燒，皮膚破爛，麻油調敷「雜忌須知第十四」<sup>95)</sup>

用蔥湯同蜜調敷。夏月濕熱紅甚者，溫茶湯同蜜調敷妙「囊癰論第三十三」<sup>96)</sup>

用公豬膽汁調稠敷患上，油紙蓋托勿動，待其自脫，脫後色紅再敷之「血風瘡第七十五」<sup>97)</sup>

用新汲水調敷，靛汁亦好「火丹第七十九」<sup>98)</sup>

用水芭蕉根搗汁調敷；加蜜亦可「小兒赤遊丹第一百十」<sup>99)</sup>

17) 起痔湯

【용례】停止枯藥，其時痔邊裂縫流膿，換用起痔湯日洗一次「痔瘡論第三十」<sup>100)</sup>

治諸痔上枯藥之後，黑色堅硬裂縫，宜此藥洗「痔瘡論第三十」<sup>101)</sup>

【구성】黃連，黃柏，黃芩，大黃，防風，荊芥，梔子，槐角，苦參，甘草(各一兩)，朴硝(五錢)「痔瘡論第三十」<sup>102)</sup>

【시술법】用水煎洗「痔瘡論第三十」<sup>103)</sup>

18) 狼毒膏

【용례】治症同前(治腎囊風濕熱爲患，疙塔作癢，搔之作疼)此藥諸癢瘡用之並效「腎囊風第七十二」<sup>104)</sup>

【구성】狼毒，檳榔，硫黃，五倍子，川椒，楓子肉，蛇床子(各三錢)「腎囊風第七十二」<sup>105)</sup>

【시술법】次下公豬膽汁一個，和勻調前藥搽擦患上「腎囊風第七十二」<sup>106)</sup>

19) 膿窠又方

【용례】還有枯瘻能燥濕，搽之痛癢即時逃「膿窠瘡第七十七」<sup>107)</sup>

【구성】黃柏(一兩，以公豬膽汁搽之，火上炙，三錢)，石膏(煨，一兩)，輕粉(二錢)，黃丹，枯礬(各三錢)「膿窠瘡第七十七」<sup>108)</sup>

【시술법】爲末，麻油調搽「膿窠瘡第七十七」<sup>109)</sup>

20) 單油膏

【용례】護肌護藥不開流「結毒論第三十七」<sup>110)</sup>

【시술법】貼結毒瘡藥上「結毒論第三十七」<sup>111)</sup>

88)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252

89)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252

90)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260

91)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266

92)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272

93)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273

94)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36

95)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36-37

96)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191

97)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249

98)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252

99)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273

100)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170

101)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176

102)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176

103)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176

104)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245

105)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245

106)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245

107)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251

108)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251

109)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251

110)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207

111) 陳實功，外科正宗，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 209

21) 當歸膏

【용례】次以當歸膏潤之「白屑風第八十四」<sup>112)</sup>

22) 大蒜

【용례】又每久逢冬即發者，須三伏時曬搗爛大蒜，間擦三次，不再發「皴痛第一百二十三」<sup>113)</sup>

【시술법】擦「皴痛第一百二十三」<sup>114)</sup>

23) 大紅膏

【용례】治瘰癧，痰核，結塊不分新久，但未穿破者並效「瘰癧論第十九」<sup>115)</sup>

【구성】南星(二兩)，銀硃，血竭，硝石，朝腦(各三錢)，輕粉，乳香(各二錢)，貓頭骨(一具，煨)，石灰(一兩，用大黃三錢切片同炒，石灰紅色去大黃)「瘰癧論第十九」<sup>116)</sup>

【시술법】爲細末，陳米醋熬稠，調藥敷核，三日一換「瘰癧論第十九」<sup>117)</sup>

24) 桃花散

【용례】皮破者，桃花散搽之，其血自止「金瘡第五十九」<sup>118)</sup>

治金瘡出血不止「金瘡第五十九」<sup>119)</sup>

治血箭以桃花散涼水調敷「血箭血痣第七十」<sup>120)</sup>

初剝時，氣未絕，身未冷，急用絲線縫合刀口，搽上桃花散，多搽爲要「救自勿斷喉法第一百三十二」<sup>121)</sup>

三日後，急手解去前藥，用桃花散搽刀口上「救自勿斷喉法第一百三十二」<sup>122)</sup>

【구성】石灰半升同大黃一兩五錢切片同炒「金瘡第五十九」<sup>123)</sup>

【시술법】石灰變紅色爲度，去大黃，篩細搽損上，紙蓋絹紮「金瘡第五十九」<sup>124)</sup>

25) 獨勝膏，獨勝散

【용례】又如損傷骨節，筋斷血流不止者，獨勝散止之「跌撲第五十八」<sup>125)</sup>

治凍風凍跟，凍耳，每逢冬寒則發「凍風第七十八」<sup>126)</sup>

【구성】用獨蒜搗膏「凍風第七十八」<sup>127)</sup>

【시술법】在於遇冬所發之處擦之「凍風第七十八」<sup>128)</sup>

26) 童便

【용례】如咬時未經此法，致腫痛發胖疼甚者，亦與童便浸洗「咬傷第九十三」<sup>129)</sup>

【시술법】浸洗「咬傷第九十三」<sup>130)</sup>

27) 銅粉丸

【용례】其患下唇發癢作腫，破裂流水，不疼難愈「唇風第一百三十九」<sup>131)</sup>

【구성】銅青(五錢)，官粉(三錢)，明礬(一錢五分)，輕粉(一錢五分)，麝香(一分五厘)，冰片(一分二厘)，黃連(二兩，切片煎稠膏)「唇風第一百三十九」<sup>132)</sup>

【시술법】黃連膏丸如芡實大，每用一丸，湯泡紙蓋，每洗頓熱，上面清水勤洗之「唇風第一百三十九」<sup>133)</sup>

28) 桐油

【용례】先用桐油搽抹患上，以桐油蘸紙粘點著「鵝掌風第七十一」<sup>134)</sup>

【시술법】搽抹，點「鵝掌風第七十一」<sup>135)</sup>

112)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57

113)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80

114)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80

115)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02

116)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02

117)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02

118)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35

119)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35

120)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43

121)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85

122)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85

123)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35

124)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35

125)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33

126)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52

127)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52

128)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52

129)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62

130)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62

131)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89

132)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90

133)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90

134)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44

135)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44

29) 桐油錢

【용례】用藥不及事，先用針刺喉間，發泄毒血，隨用桐油錢雞翎探吐稠痰，務使痰毒出盡「咽喉論第二十一」<sup>136)</sup>

以桐油錢雞翎探吐稠痰數碗，語聲方出「咽喉論第二十一」<sup>137)</sup>

治喉風，喉閉，其症先兩日胸膈氣急，呼吸短促，驀然咽喉腫痛，手足厥冷，氣閉不通，頃刻不治「咽喉論第二十一」<sup>138)</sup>

【구성】先用溫湯半碗，加入桐油三，四匙攪勻「咽喉論第二十一」<sup>139)</sup>

【시술법】用硬雞翎蘸油探入喉中「咽喉論第二十一」<sup>140)</sup>

30) 棟果裘

【용례】治陽明胃經實火上攻，血從牙縫流出「牙縫出血第六十九」<sup>141)</sup>

【구성】棟樹果二個，連肉，核搗爛，絲綿包裹「牙縫出血第六十九」<sup>142)</sup>

【시술법】先用溫湯漱淨瘀血，塞於牙縫內「牙縫出血第六十九」<sup>143)</sup>

31) 螻蛄

【용례】硬深難出者，用螻蛄搗爛塗刺上一時許，其刺自然吐出「竹木刺第八十七」<sup>144)</sup>

【시술법】塗「牙縫出血第六十九」<sup>145)</sup>

32) 柳花散

【용례】虛火者，色淡而白斑細點，甚者陷露龜紋，脈虛不渴……外以柳花散搽之「大人口破第一百十八」<sup>146)</sup>

虛陽口破功奇速「大人口破第一百十八」<sup>147)</sup>

【구성】黃柏(淨末，一兩) 青黛(三錢) 肉桂(一錢) 冰片(二分)「大人口破第一百十八」<sup>148)</sup>

【시술법】每用少許吹之「大人口破第一百十八」<sup>149)</sup>

33) 麻油

【용례】如咬時未經此法，致腫痛發胖疼甚者……挹幹用粗紙捻蘸麻油點火，用煙焔腫痛上「咬傷第九十三」<sup>150)</sup>

百蟲入耳，乃偶然誤入之，如蠅，蚊細蟲入耳，以麻油數點滴入竅中，蟲亦自死取出「百蟲入耳第一百二十六」<sup>151)</sup>

蜈蚣咬傷，疼腫驟發……用粗紙捻蘸麻油，點火用煙焔之，疼腫自消「惡蟲叮咬第一百二十七」<sup>152)</sup>

遲延毒走腫痛者，麻油焔之亦瘥「惡蟲叮咬第一百二十七」<sup>153)</sup>

【시술법】用粗紙捻蘸麻油點火，用煙焔腫痛上「咬傷第九十三」<sup>154)</sup>

點滴入竅中「百蟲入耳第一百二十六」<sup>155)</sup>

焔熏「惡蟲叮咬第一百二十七」<sup>156)</sup>

34) 萬靈丹(= 保安萬靈丹)

【용례】一男子勞傷受寒，背生三腫，皮色不變，寒熱交作，至夜尤甚。先以萬靈丹洗浴發汗，寒熱頓退「流注論第二十五」<sup>157)</sup>

初起麻木不仁，肌肉未死者，宜萬靈丹洗浴發汗，以散凝滯之風「大麻風第四十八」<sup>158)</sup>

【구성】茅朮(八兩) 全蠍 石斛 明天麻 當歸 甘草(炙) 川芎 羌活 荊芥 防風 麻黃 北細辛 川

136)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13  
137)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13  
138)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13  
139)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13  
140)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13  
141)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43  
142)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43  
143)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43  
144)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59  
145)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59

146)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78  
147)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78  
148)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78  
149)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78  
150)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62  
151)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82  
152)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82  
153)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83  
154)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62  
155)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82  
156)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83  
157)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38  
158)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23

烏(湯泡, 去皮) 草烏(湯泡, 去皮尖) 何首烏(各一兩) 明雄黃(六錢)「大麻風第四十八」<sup>159)</sup>

【시술법】洗浴「大麻風第四十八」<sup>160)</sup>

### 35) 麥錢散

【용례】皮膚頑厚有蟲者, 麥錢散搽之「癩風第九十一」<sup>161)</sup>

禿斑乾枯作癢者, 內必有蟲, 宜用麥錢散搽之, 蟲死, 風散, 發生可愈「白禿瘡第一百四」<sup>162)</sup>

治禿瘡頭毛脫落, 白斑如癩, 瘡痂壘壘, 疊起癢甚, 猶若蟲行「白禿瘡第一百四」<sup>163)</sup>

其患先從細瘡作癢, 次漸沿開成片, 脂水生痂, 搔之無度, 因用麥錢散搽之「小兒痘風瘡第一百九」<sup>164)</sup>

治小兒痘風作癢, 疊疊成片, 甚則頑麻不知痛「小兒痘風瘡第一百九」<sup>165)</sup>

【구성】小麥一升炒枯黃色, 乘熱入鉢內和硫黃四兩, 白砒一兩……加煙膠半斤, 川椒三兩, 生枯礬各二兩共碾細末「小兒痘風瘡第一百九」<sup>166)</sup>

【시술법】蔥湯洗淨瘡癢潔淨, 用麻油調搽, 以氈帽戴之「白禿瘡第一百四」<sup>167)</sup>

臨用蔥湯洗淨, 用麻油調搽, 油紙蓋紮「小兒痘風瘡第一百九」<sup>168)</sup>

### 36) 木香餅

【용례】治一切氣滯結腫成核, 或痛或悶, 風寒所傷並效「乳癰論第二十六」<sup>169)</sup>

【구성】木香(五錢) 生地黃(搗膏, 一兩)「乳癰論第二十六」<sup>170)</sup>

【시술법】作餅置腫上, 以熱熨鬥熨之「乳癰論第二

十六」<sup>171)</sup>

37) 妙貼散(→眞君妙貼散)

(이하생략)

## 4. 施術方法別로 활용되는 처방

외치요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시술방법을 들 수 있다. 그 시술방법의 번거로움과 또한 정확한 연구의 부족은 현재까지 외치요법이 활용되는 범위가 제한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로 인해 현대의 한의학은 외치요법이 단점으로 지적받는 현실이다. 그러나 외치요법의 시술방법이 모두 번거로운 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현재에 적용할 때 탁월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술도 다수라 하겠다. 『外科正宗』에도 다양한 외치처방과 그 시술방법이 소개되어 있으며 당시에는 잘 시도되지 않았던 手術法이나 도구 등을 기술하는 등<sup>172)</sup>, 그 시술법을 오늘날의 여건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 1) 熏法(燒, 煙, 煙, 燃, 燈, 燻, 薰)

외치요법 중에 비교적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써, 약물을 煎湯하여 그 증기를 환부에 쏘이는 것과 약물을 태워서 煙氣를 쏘이는 방법이다. 熏은 『說文』에서 “火因上出也”라고 하였으며, 『中華大字典』에서는 “香氣也”, “蒸也”라고 하였다. 약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발생하고, 태우면 연기가 발생한다. 또한 휘발성이 강하거나 향기가 강한 약물은 가만히 두어도 그 기운이 상승하며 퍼져나갈 수 있다. 이 기운을 효과적으로 쏘는 것이 이 처치법의 목적이다. 熏法은 약물의 확산하는 기운과 그 속의 약물의 輕淸한 기운에 접촉하는 방법이므로 陽氣를 보강할 수 있으며 寒氣를 몰아낼 수 있고 皮膚의 衛氣를 강화시킬 수 있다. 흔히 사용할 수 있는

159)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23

160)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23

161)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61

162)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68

163)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68

164)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71

165)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71

166)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71

167)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68

168)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71

169)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49

170)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49

171)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49

172) 洪元植 外 1人, (增補)中國醫學史, 서울, 일지사, 2001, p. 489-490.

부위는 呼吸器, 陰部 등과 같이 겉으로 쉽게 노출되지 않고 수증기나 연기와 같이 작은 粒子를 통해서 접촉할 수 있는 부위들이지만 모든 신체부위에 활용할 수 있다. 관련용어로는 燒, 煙, 煙, 燃, 燈, 燻, 薰 등이 있다.<sup>173)</sup>

(1) 甘草, 白芷, 蒼朮, 紫蘇

煎湯. 每日熏洗「陰瘡論第三十九」<sup>174)</sup>

(2) 芎歸湯

熏洗. 煎湯浴洗患上, 隨後搽藥「陰瘡論第三十九」<sup>175)</sup>

(3) 竈油

用粗紙捲蘸麻油點火, 用煙焰熏腫痛上「咬傷第九十三」<sup>176)</sup>

以竈油數點滴入竅中, 蟲亦自死取出「百蟲入耳第一百二十六」<sup>177)</sup>

(4) 蛇床子湯

先熏. 待溫浸洗二次愈「腎囊風第七十二」<sup>178)</sup>

(5) 洗痔腫痛方

先熏後洗「痔瘡論第三十」<sup>179)</sup>

(6) 洗痔枳殼湯(= 枳殼湯)

先熏後洗「痔瘡論第三十」<sup>180)</sup>

(7) 枳殼, 紫蘇煎湯

熏洗「麟毒論第二十九」<sup>181)</sup>

(8) 塌瘻湯

乘熱先熏, 待溫後洗, 臨洗 …… 同洗更妙「陰瘡論第三十九」<sup>182)</sup>

(9) 海艾湯

先將熱氣熏面, 候湯溫熏洗之, 留藥照前再洗「油風第八十三」<sup>183)</sup>

(10) 熏發背奇方

熏後隨用敷藥「雜忌須知第十四」<sup>184)</sup>

(11) 熏洗結毒方

將患上對罐口以熱氣熏之, 半熱傾藥盆內淋洗患上 …… 「結毒論第三十七」<sup>185)</sup>

2) 藥浴療法

용매를 이용하여 전탕한 전탕액 혹은 약재를 직접 잔 즙액으로 환부 혹은 관련부위를 적시거나 씻어내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치료법은 환부를 세척하는 요법과 약물의 효능을 동시에 응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매개체인 용매의 물리적인 특성과 약물사용에 관한 辨證論治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방법이다.<sup>186)</sup> 이 방법은 藥浴熏洗 과정 중 약물의 유효성분이 피부를 통하여 체내에 흡수되어 각종 효능을 발휘하게 되며, 發汗解表, 活血通絡, 清熱解毒, 祛腐生肌, 美容, 祛病延年 효과가 있다.<sup>187)</sup> 주로 활용하는 부위는 외과질환이 있는 부위에 직접 사용하게 되므로 특정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가장 넓은 범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의치요법 중에서 시술이 가장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sup>188)</sup>

173) 許敬子, 外臺秘要에 기재된 外治療法에 관한 研究,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005, p. 162-163

174)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14

175)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16

176)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62

177)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82

178)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44

179)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76

180)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74

181)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66

182)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16

183)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57

184)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35

185)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06

186) 秦元峰 外 1人, 中醫外治療法集萃, 赤峰市, 內蒙古科學技術出版社, 2002, p. 3.

187) 秦元峰 外 1人, 中醫外治療法集萃, 赤峰市, 內蒙古科學技術出版社, 2002, p. 4-6.

188) 許敬子, 外臺秘要에 기재된 外治療法에 관한 研究, 경산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005, p. 169

(1) 적시기(灌, 淋, 點, 噴, 含, 漬)

灌法은 藥汁, 藥液등을 대롱이나 주사기를 사용하여 鼻, 口, 咽喉, 直腸등에 주입하는 방법이다. 淋法은 약수와 약액을 위에서 아래로 방울방울 떨어뜨려 적시는 방법이며, 주로 환부에 직접 떨어뜨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點法은 흡착성과 휘발성이 강하고 침투성이 강한 약제를 국소부위에 살포하여 침투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예전에는 입으로 뱉거나 대롱을 이용했으나 요즘은 스포이드나 분무기를 사용한다.<sup>189)</sup> 噴法 역시 噴霧法의 일종으로 藥末 혹은 藥液을 환처에 뿌어서 치료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點法보다 좀 더 넓은 부위에 활용한다. 含法은 약물 조각 혹은 덩어리를 가루로 만들거나 또는 뺀아서 태운 뒤 즙을 내어 丸, 膏등을 만들어 직접 입안에 넣거나 천에 싸서 입안에 넣고 머금고 있는 치료방법이다. 咬는 약물을 천에 싸서 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漬法은 약물을 만들어 몸의 전체 혹은 일부를 담그는 방법이다. 坐浴도 이 방법에 속한다.<sup>190)</sup>

(2) 씻어내기(沐, 浴, 洗, 漱, 淨, 滌, 拭)

浴(沐)法은 약물의 전탕액을 사용하거나 약을 담긴 물로 전신 혹은 국부를 씻어서 치료하는 방법이다. 洗法보다 범위가 훨씬 넓으며 浸浴시간도 길다. 洗法은 약물 전탕액을 사용하여 환처 및 국부, 혹은 전신부위에 이르기까지 씻어내는 방법이다. 漱法은 약즙, 약액, 약주, 약제를 담긴 쌀뜨물 등을 사용하여 입안을 행구는 방법이다. 구강 및 인후질화에 빈용한다. 기타 淨, 滌, 拭法은 특별한 정의는 없이 단지 씻어내는 행위를 뜻하는 글자이다.<sup>191)</sup>

① 茄根, 蔥湯

洗「東風第七十八」<sup>192)</sup>

② 甘草, 白芷, 歸尾, 蔥白

煎洗「結毒論第三十七」<sup>193)</sup>

③ 甘草, 白芷, 蒼朮, 紫蘇

煎湯, 每日熏洗「陰瘡論第三十九」<sup>194)</sup>

④ 甘草湯, 甘草溫湯, 甘草煎湯

淋洗「雜忌須知第十四」<sup>195)</sup>

⑤ 枯礬散

溫湯洗淨, 搽藥「婦人脚丫作癢第九十八」<sup>196)</sup>

(이하생략)

3) 敷貼療法

敷貼療法은 일반 敷貼療法과 濕敷療法으로 나눌 수 있다. 敷貼療法은 신선한 약제를 찢거나 건조된 약제를 갈아서 물, 술, 식초, 엿, 식물성 기름, 계란흰자, 파즙, 생강즙, 마늘즙, 차 등과 골고루 섞어서 患處나 穴位에 직접 바르거나 붙이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요법은 經絡理論에 근거하여 국소질환 뿐만 아니라 전신질환에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經絡 순행 경로를 살펴서 穴位를 선택한 후에 약물을 바름으로써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up>197)</sup> 濕敷療法은 약물을 끓여서 만든 전탕액을 濕布의 방법을 통하여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피부 손상부위에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관련 용어로는 措, 繫, 裏, 塗, 摩, 抹, 封, 傅, 敷, 約, 掩, 著, 粘, 擦, 貼, 糊, 搓, 纏가 있다.<sup>198)</sup>

(1) 加味太一膏

隨用時每取一塊銅杓內復化, 隨便攤貼至妙「雜忌須知第十四」<sup>199)</sup>

193)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04

194)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14

195)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3

196)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65

197) 秦元峰 外 1人, 中醫外治療法集萃, 赤峰市, 內蒙古科學技術出版社, 2002, p. 15

198) 許敬子, 外臺秘要에 기재된 外治療法에 관한 研究, 경산 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005, p. 225-226

199)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41

189) 申光浩, 漢方外用藥, 서울, 열린책들, 1994, p. 109

190) 許敬子, 外臺秘要에 기재된 外治療法에 관한 研究, 경산 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005, p. 169-170

191) 許敬子, 外臺秘要에 기재된 外治療法에 관한 研究, 경산 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005, p. 201

192)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52

(2) 乾坤一氣膏  
對患貼之「痞癰第六十四」<sup>200)</sup>

(3) 枯瘤方  
先灸瘤頂三炷, 以藥餅貼之, 上用黃柏末水調, 蓋敷藥餅「癭瘤論第二十三」<sup>201)</sup>

(4) 枯礬散  
溫湯洗淨, 搽藥「婦人脚丫作癢第九十八」<sup>202)</sup>

(5) 枯痔散  
將藥研末搽痔上, 每日辰, 午, 申三時用溫湯洗淨「瘰癧瘡第八十八」<sup>203)</sup>

(이하생략)

#### 4) 藥袋療法과 藥栓療法

약물을 특수한 형태의 자루에 넣어서 사용하는 외치요법으로 약물의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므로 만성질환에 효과적이다. 藥袋는 치료약물로 구성된 藥芯, 藥芯을 싸고 교환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藥外袋, 藥外袋를 인체에 고정하는 固定帶로 이루어져 있다.<sup>204)</sup> 藥袋療法の 효과는 주로 藥芯을 구성하는 약물에 의하여 좌우되며, 약물의 피부를 통한 침투뿐만 아니라 몇몇의 경우에는 방향성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藥囊에 약재를 넣어 呼吸器, 陰部, 瘡口에 插入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여졌다. 藥栓療法은 약물을 분말화하여 적당량을 賦形劑와 혼합하여 타원형의 고체로 만들거나 膏劑로 만들어 肛門, 陰道, 鼻腔, 耳 등에 插入하는 방법으로 九竅疾患 및 外科疾患에 대하여 외치요법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藥袋療法은 용도에 있어서 藥栓療法과 비슷하나 휴대성과 시술방법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어 활용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관련용어는 裏, 帶, 袋, 塞, 插, 掩, 填, 坐藥, 佩

200)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40  
201)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27  
202)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65  
203)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75  
204) 秦元峰 外 1人, 中醫外治療法集萃, 赤峰市, 內蒙古科學技術出版社, 2002, p. 18.

懷 등 이다.<sup>205)</sup>

(1) 棟果裘  
先用溫湯漱淨瘀血, 塞於牙縫內「牙縫出血第六十九」<sup>206)</sup>

(2) 冰蠟散  
用綿紙以厚糊封貼核上, 勿動泄氣, 七日後四邊裂縫, 再七日其核自落, 換搽玉紅膏, 內服補藥兼助完口「瘰癧論第十九」<sup>207)</sup>

(3) 三品一條槍  
凡遇前症有孔者, 紆入孔內, 無孔者, 先用針放孔竅, 早晚插藥二次, 插至三日後, 孔大者每插十餘條, 插至七日, 患孔藥條滿足方住「瘰癧論第十九」<sup>208)</sup>

(4) 蟾酥條  
插入「腦疽論第十六」<sup>209)</sup>

(5) 五香散  
爲細末, 每用五厘, 津調搽擦兩腋下, 三日一次, 或用香末二錢, 絹袋盛貯掛於腋下亦效「體氣第一百三」<sup>210)</sup>

(이하생략)

#### 5) 藥熨療法

藥袋, 藥餅, 藥膏, 藥酒 등과 같은 약물에 열을 가한 뒤 특정 체표부위에 올려놓고 찜질을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약재의 효능과 열의 작용이 함께 피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腠理弛緩, 經絡調和, 氣血疏通을 促進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祛風散寒, 溫經通絡, 鎮痛, 消腫의 효과가 있다<sup>211)</sup>.

205) 許敬子, 外臺秘要에 기재된 外治療法에 관한 研究, 경산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005, p. 311-312  
206)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43  
207)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01  
208)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03  
209)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67  
210)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68  
211) 秦元峰 外 1人, 中醫外治療法集萃, 赤峰市, 內蒙古科學技術出版社, 2002, p. 21-22

관련용어는 熨, 烙이다.<sup>212)</sup>

(1) 木香餅  
作餅置腫上, 以熱熨鬥熨之「乳癰論第二十六」<sup>213)</sup>

(2) 香附餅  
熱熨鬥熨藥上「流注論第二十五」<sup>214)</sup>

6) 藥按按摩  
貼敷療法과 按摩를 동시에 이용한 외치요법이다. 따라서 약물의 유효성분의 삼투와 안마의 물리적 작용이 융합되어 작용하므로 치료효과가 한층 강하고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관련용어로는 摩, 按, 揉, 擦, 搓등이 있다.

(1) 狼毒膏  
次下公豬膽汁一個, 和勻調前藥搽患上「腎囊風第七十二」<sup>215)</sup>

(2) 大蒜  
擦「皴痛第一百二十三」<sup>216)</sup>

(3) 獨勝膏, 獨勝散  
在於遇冬所發之處擦之「凍風第七十八」<sup>217)</sup>

(4) 蜜陀僧散  
搽擦, 爲末, 醋調搽患上<sup>218)</sup>

(5) 肥皂方  
洗擦患上「紫白癩風第五十四」<sup>219)</sup>  
(이하생략)

### 7) 芳香療法

방향성을 가진 약제로 구성된 방제를 이용하여 각종 형태의 香料, 食品, 外用劑를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된 요법이다<sup>220)</sup>. 이 방법은 작은 비단주머니에 香料를 넣어 몸에 차고 다니거나 대들보에 매달아 두어 향을 퍼뜨리며 질병을 예방하였고 혹은 베개로 사용하거나 향로에 불을 피우는 방법들을 통하여 邪氣를 물리치고 해충을 물리치는데 사용하였으며 특히 枕法을 이용하여 정신질환의 치료에도 사용되었다. 관련용어로는 薰, 聞, 枕, 佩, 嗅, 吸이 있다.<sup>221)</sup> 『外科正宗』에는 방향요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8) 기타요법

#### (1) 吹法

약재를 散劑로 만들어서 管을 이용하여 환부에 직접 불어넣거나 직접 입으로 불어서 뿌리는 방법이다. 患處는 주로 귀나 코 안과 같이 직접 약을 불어넣거나 바르기 곤란한 부위일 경우가 많으나 쉽게 노출되는 부위에도 자극이 적도록 하기 위해 吹法을 쓰는 경우도 있다.

#### ① 結毒靈藥方

將罐倒懸, 紗眼內篩藥患上 …… 男子, 婦人咽爛者, 靈藥一錢加入中白二分研細吹之「結毒論第三十七」<sup>222)</sup>

#### ② 金鎖匙, 金鎖匙湯

以竹筒吹患處「咽喉論第二十一」<sup>223)</sup>

#### ③ 柳花散

每用少許吹之「大人口破第一百十八」<sup>224)</sup>

212) 許敬子, 外臺秘要에 기재된 外治療法에 관한 研究, 경산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005, p. 323

213)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49

214)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41

215)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45

216)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80

217)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52

218)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96

219)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29

220) 秦元峰 外 1人, 中醫外治療法集萃, 赤峰市, 內蒙古科學技術出版社, 2002, p. 45

221) 許敬子, 外臺秘要에 기재된 外治療法에 관한 研究, 경산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005, p. 332-333

222)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08

223)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13

224)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78



④ 碧雲散

共爲細末, 患者口嚙涼水, 以蘆筒吹藥疼之左右鼻內, 取嚏爲效「結毒論第三十七」<sup>225)</sup>

⑤ 赴筵散

爲末吹患上「大人口破第一百十八」<sup>226)</sup>  
(이하생략)

(2) 結紮療法

주르 실에 약재를 머금게 하여 묶거나 약재와 함께 묶도록 하여 약효를 내는 방법이다. 이런 치료방법은 신체에 병적인 돌출부위가 있을 때에 활용가능하며 묶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의 약 효과를 낼 수 있다.

① 絲藥線

齊根系緊「枯筋筋第九十七」<sup>227)</sup>

② 煮線方

用線一根, 患大者二根, 雙扣系於根蒂, 兩頭留線, 日漸緊之「痔瘡論第三十」<sup>228)</sup>

### III. 結論

현재 한의학의 치료법 중에서 외치요법의 비중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외치요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外科의 영역에서도 외치요법은 소외되어 왔으며 충분한 연구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한의학의 외치요법을 집약했다고 볼 수 있는 『外科正宗』에서 외치요법들을 분석하여 한방 외치요법의 활용영역을 넓히고 그 활용가치와 활용법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外科正宗』은 외과질환을 癰疽門, 上部疔毒門, 下部癰毒門, 雜瘡毒門으로 구분하여 각 門마다 속하는 질환들을 篇으로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모두 157篇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篇은 대부분 한가지 외과질환을 다루고 있어 총 122종의 외과질환을 기재하였다. 이 각각의 외과질환에 외치처방은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1) 총 122개 외과질환 중에서 외치요법이 독립된 주치처방으로 활용된 질환은 모두 75개 질환이다. 이는 외과질환의 반 이상에서 하나 이상의 독립된 외치처방을 활용했다는 의미로 외치요법의 비중이 컸음을 나타낸다.

2) 각 처방의 주치, 효능은 『外科正宗』내의 처방해설과 치험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당시에 외치처방들이 임상상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좋은 치료효과를 내어왔음을 나타낸다.

3) 각 門별로 활용된 주치처방은 癰疽門 18개 처방, 上部疔毒門 17개 처방, 下部癰毒門 37개 처방, 雜瘡毒門 99개 처방으로 雜瘡毒門이 질환이 가장 많은 만큼 다양한 외치처방들이 활용되고 있다.

4) 한 질환에 가장 다양한 외치처방을 활용하고 있는 질환은 癰疽 18개 처방, 痔瘡 13개 처방, 結毒 7개 처방 순이다.

2. 『外科正宗』에서 언급된 처방은 900가지 이상이다. 그중 활용된 모든 외치처방을 검색한 결과 150가지 이상의 처방이 검색되었다. 각 질환마다 거의 1번 이상은 외치요법을 활용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있으며 그 활용범위도 다양하여서, 실제 臨床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처방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1) 대부분의 처방에서 主治와 效能, 處方構成, 製造法, 施術法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어 외치요법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臨床上 활용가치를 높게 평가한 면을 볼 수 있다.

2) 10회 이상 활용된 빈출처방은 다음과 같다. 如意金黃散 20회, 冰硼散 12회, 蟾酥餅 15회, 蟾酥條 13회, 生肌玉紅膏 35회, 眞君妙貼散 12회, 珍珠散 24회, 蔥湯 11회.

225)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09  
226)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79  
227)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265  
228)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177

3. 시술방법의 번거로움과 정확한 연구의 부족은 현재까지 외치요법이 활용되는 범위가 제한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결과 製造法 및 施術法이 간결하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비교적 쉽게 시술할 수 있는 처방들이 다수였다.

1) 『外科正宗』에서 활용된 시술법은 熏法, 藥浴療法, 敷貼療法, 藥袋療法과 藥栓療法, 藥熨療法, 蘸藥按摩이 있었으며 그 외 기타요법으로 吹法과 結紮療法이 있었다.

2) 각 시술법별로 사용된 처방의 수는 다음과 같다. 熏法 11개 처방, 藥浴療法 41개 처방, 敷貼療法 93개 처방, 藥袋療法과 藥栓療法 10개 처방, 藥熨療法 2개 처방, 蘸藥按摩 14개 처방, 吹法 8개 처방, 結紮療法 2개 처방.

3) 가장 많은 처방이 시술된 敷貼療法은 역시 膏劑를 만드는 번거로움이 있고 현대인에게는 시술 후의 불편함도 존재하여 외치요법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난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IV. 참고문헌

<논문>

1. 文字尙. 外治療法 學術史에 관한 研究. 경산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005.
2. 許敬子, 『外臺秘要』에 기재된 外治療法에 관한 研究. 경산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005.
3. 이병욱, 김상찬, 변성희, 김한균, 지선영. 千金要方에 기재된 藥浴療法에 관한 研究.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4. 17(1).
4. 박태열, 고우신. 馬王堆醫書·黃帝內經·金匱要略에 나타난 中國 古代 外治療法.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대한동의생리학회·대한동의병리학회. 2002. 16(4).
5. 權一惠, 鄭鎮鴻. 乳房疾患에 관한 鍼灸治療와 外治療法에 대한 文獻的 考察. 대전대논문집.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2001. 10(1).
6. 金美貞, 鄭鎮鴻. 帶下에 대한 鍼灸治療와 外治療法에 관한 文獻的 考察. 대전대논문집.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2001. 10(1).
7. 李貞鏞, 盧石善. 外科正宗에 수록된 外用藥에 대한 文獻的 考察. 대한외관과학회지. 대한외관과학회. 2000. 13(1).
8. 金宰弘, 金賢兒. 吳師機의 外治法 思想에 대한 研究. 대한외관과학회지. 대한외관과학회. 1999. 12(1).

<단행본>

1. 廖育群, 傅芳, 鄭金生 著. 朴炫局 外 2人 共譯. 中國科學技術史·醫學篇. 서울. 일중사. 2003.
2. 金達鎬. 注解補注黃帝內經靈樞. 서울. 의성당. 2002.
3. 秦元峰, 張小平. 中醫外治療法集萃. 赤峰市. 內蒙古科學技術出版社. 2002.
4. 具炳壽, 李東垣 譯. 儒門事親.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5. 洪元植, 尹暢烈 編著. (增補)中國醫學史. 서울. 일중사. 2001.
6. 申光浩. 韓醫外治療法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0.
7. 吳尙先. 理淪駢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8. 鄭在書. 山海經. 서울. 민음사. 1997.
9. 申光浩. 漢方外用藥. 서울. 열린책들. 1994.
10. 康舜洙. 方劑學. 서울. 계축문화사. 1987.
11.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7.
12.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13.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 五洲出版社圖書有限公司. 臺北. 미상.